

전남도 사상 첫 9조원대 예산 편성

추경 8130억 증액
도민 생계·소상공인 지원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중점

추경 증액규모는 8130억원으로 일반회계 7827억원, 특별회계 303억원이다.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5657억원과 세외수입 205억원, 지방교부세 426억원, 순세계입여금 등 1842억원이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으로 지난 5월 4일 성립전예산으로 시·군에 이미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458억원을 비롯 공묘사업 확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198억원과 이에 따른 매칭 사업비 100억원을 반영했다.

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방도 정비 150억원과 시내·시외버스 재정지원 128억원, 도내 투자기업 지원 35억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10억원 등 자체사업에 1537억원, 법정외무경비·경상경비 등에 787억원을 편성했다. 각종 행사 경비와 사업비 등에서 253억 원을 절감해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분야별로는 공공행정분야(재난지원금 포함) 5324억원, 안전분야 49억원, 관광 및 문화예술분야 285억원, 환경분야 157억원, 보건복지분야 258억원, 농수산분야 656억원, 일자리 및 경제분야 345억원, 건설교통분야 828억원, 교육개선분야 268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명장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 감염병 청정지역인 전남도에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재난지원금 지원과 소비 진작,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생활과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342회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대, 장미원 SNS에 공개 21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장미원 주변을 학생들이 걷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장미축제가 취소되고 장미원 입장도 전면통제됐다. 조선대는 장미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대학 홈페이지와 SNS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공익직불제 행정지원단' 본격 가동

다음달 말까지 운영

전남도는 올해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익직불제 행정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공익직불제 행정지원단은 농가 직불금 신청 독려와 현장 문제점 등 농업인 애로 사항 해결을 비롯 일선 담당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 상담창구 역할도 함께 수행할 방침이다.

단장으로 팀장, 실무자 등 5명 내외로 편성됐다.

전남도는 지난 4월까지 18만3000여 농가의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을 완료하고, 마을별 신청일정 수립, 사전 신청서 배부 등을 통해 농가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22개 시군·에서 전산입력을 위한 보조인력 236명을 채용하도록 인건비 16억 원을 배정하는 등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곽홍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도 직불금 신청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영상회의와 동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적극 홍보했다"며 "행정지원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공익직불제가 첫 해부터 성공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기준 전라남도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실적은 2만8000여명으로 계획인원 대비 15% 완료했다. 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고희보성장흥진 김승남

"사회적 약자 위한 의정활동 할 것"

국민에 봉사하는 국회 만들 것
농어민수당 지급 법제화
지속가능한 농촌만들기 앞장
'지방소멸 위험' 타개책 마련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김승남(54) 고희·보성·장흥·강진 선거구 당선인은 21일 "농어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21대 국회 등원을 앞두고 이날 광주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저의 어린 시절 삶의 터전이 되었던 농어촌은 우리 경제가 성장할수록 희생을 강요당했다. 정치권에서 제 역할을 농어촌을 지켜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의정활동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큰 힘을 실어주신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김 당선인은 4·15 총선에 대해 "지난 20대 국회는 정부 발목잡기 식 '국회 파행'과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 일하지 않는 국회로 낙인찍혀 특히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는 국민의 높은 기대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여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 4년간 지속적인 농업농촌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 때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10년간 농어촌생생협력금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현재 조성기금은 740억 정도에 그쳐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무역이득공유제법을 개정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다. 김 당선인은 "FTA(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의 기금조성을 의무화로 개편해 (국내 다른 산업을 위해 희생하고) 피해를 입은 국내 농축수산업 대한 지원책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민수당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은 재정적으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뒤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국가 차원에서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법제화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최우선 현안으로는 '지방소멸위험' 타개책 마련을 들었다. 김 당선인은 "지방소멸위험지수로 보면, 고희·보성·장흥·강진 모두 소멸위험 지역이다. 특히 고희는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

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층이 돌아와 지역 경제의 근간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이 청년들에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안(청년 농어업인 영농정책지원금 지원, 스마트팜 기술 보급 등)을 만들고, 낙후된 전남 중남해안권 지역(관광·강진만권)에 거점별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국내외 여행객을 끌어들이려 한다"며 "국회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견인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9대 초선의원 당시 부족했던 점도 되돌아봤다. 김 당선인은 "저는 19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농어촌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농어민의 권익을 앞장서서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의욕은 앞섰지만 정교함이 부족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그동안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 전문가로서 지속 가능한 농어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김승남 당선인은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의민생당 황주홍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직 선제를 끌어냈던 1987년 6월 항쟁에서 일역을 담당했다. 이후 1993년 민주당 대표실 비서실장으로 있던 문화상 국회 의장 권유로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김 당선인은 정치권 입문 계기에 대해 "학생운동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은 청산됐지만, 군사정권에 의해 굳어진 불평등 구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을 느꼈다"며 "제도적 변화를 통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권 즉 정치권 진입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러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코로나 여건 속 투자유치 34% 증가

78개 기업과 2조 투자협약 체결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여만에 2조원이 넘는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는 21일 "올해 5월 기준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가 증가한 78개 기업, 2조175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준 58개 기업(2조7507억)과 비교해 20개 기업이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전략적 유치활동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최근 (주)한양과 여수 모도 LNG터미널 건설을 위한 1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협약을, 오는 6월 울촌정정에너지(주)와 6000억원의 대규모 투자협약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향후 전개될 경제 트렌드와 정부 산업정책(한국판 뉴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의약 등 6대 산업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리소어링 기업(리턴기업) 등 산업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인센티브를 대폭 개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치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월 85~105만원 수익 예상
원금 보장,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수목장 44.2% 남골당 37% 산소 4% 기타 14.8%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